

무릅선교사 여러분 안녕들 하시지요? 벌써 Covid-19 으로 인한 불편 함 속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고 부스터 백신까지 맞아 요즘 갑자기 상승세를 보이는 코비드의 소식이 피부로 와서 닿지는 않았는데 같이 사는 딸아이의 확진으로 드디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몸살 감기를 앓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며칠 후면 자가 격리에서 풀리게 됩니다.

본부 사역을 내려 놓고 나니 리더로서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부에 속한 멤버들을 위해 내가 직접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이 특히 코비드 시대에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저들의 건강, 사역, 자녀 문제 등등이 마음으로 감당하는 큰 무게였음을 본부장의 직분을 내려 놓으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메꾸어 준 신임 대표 배선호선교사의 성실함과 젊음이 큰 위로와 기대가 됩니다.

코비드 때문에 사역 지 사마르 섬을 다녀 온 지가 근 2 년이 되어갑니다. 마닐라에서의 격리에 또 사마르 섬 자체의 격리에

거의 한 달 가까운 격리 기간을 거치는 것도 갈 수 없는 이유가 되었지만 그렇게라도 가볼까 했을 때 비행기 표가 평소의 4 배 정도 올라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화상통화를 사용해 매주 얼굴을 맞대고 대화 할 수 있어

멀리서나마 함께 시삽사역을 운영 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 뿐입니다. 코비드가 한창 일 때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만 요즘 다시 근 20 명 정도까지 복귀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코비드 기간 중에는 특히 현지인 동역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키워내며 계속 사마르 섬 자신들의 종족을 대상으로 교회 개척을 하는 저들을 보면 대견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한 2 년 전부터 전립선 PSA (특이항원수치)가 정상을 벗어나 전문의의 care 을 받기 시작 했는데 얼마 전 두 번째 조직 검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관찰 단계에서 벗어나 수술을 하던지 방사선 치료를 받던지 해야한다는 초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지인 의사들과 의논 한 결과 아직은 젊고 (?) 건강하니 아마도 수술이 가장 최선의 선택 일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육십 년 이상을 사용 해 온 걸 사람을 이제는 조금 씩 고쳐 가며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 대 후반 소명을 받고 선교지로 떠난 것이 꼭 26 년이 되었는데 참으로 지금까지도 그 짧지 않은 세월을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과 물질로 동역 해주신 여러분들께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 소명을 감당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은퇴를 꿈꾸어 본 적은 없습니다. 본부 사역은 내려 놓았지만 앞으로 시삽사역의 재정 독립과 또 주께서 새롭게 맡겨 주시는 일들을 찾아내어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새 해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저희의 삶과 사역을 걸어봅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속으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는 계절이 되소서.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김승봉/유영선 선교사 드림

김승봉/유영선 선교사

기도제목

2021 년 12 월

1. 코비드 상황이 완화 되어 사마르 사역지를 속히 방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2. 주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사역을 잘 감지 해 내며,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3. 시삽사역을 감당하고있는 현지인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매일 매일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4. 김선교사의 수술과 회복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일을 통해 주의 깊은 은혜를 체험 할 수 있도록
5. 저희부부가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매일매일 거하며 그 안에서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 가도록 기도 해 주세요

아내선교사코너

지난 여름이 끝나갈 무렵 바이올라 대학 공동체에 속한 한 지인의 기도 요청을 받았다. 꽤 긴 세월, 암으로 투병하며 고생하던 남편이 어제 호스피스로 옮겨 졌다며, 며칠이 될지는 모르나 그 남은 날들은 거룩한 날들이 (holy days)이 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편 116:15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해 달라고 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영어성경에서 나오는 이 “Precious” 라는 말이 심히 마음에 걸렸다. 이 말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귀엽고 예쁠 때 “So precious!” 이렇게 사용된다는 사실 특히 아름답고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생각에 며칠을 “하나님, 도대체 이 Precious 라는 말 뜻이 무엇이지요? What is the meaning of precious in this situation?”라고 물어 보았는데 얼마가 지났을까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낼 때 겪었던 일이었다. 아이들이 두 세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잠 자는 일이었다. 보통 분기 말 시험을 끝내고 집에 오면 며칠 시험 때문에 잠이 부족해서 그런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잠을 잔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자는 아이의 침대 끝머리에 앉아 속으로 “빨리 일어나거라. 빨리 좀 눈을 떠라.”하며 기다렸다. 셀폰으로 얘기 하는 것과 아이가 집에 와 얼굴을 맞대며 품에 안고 나누는 대화는 비교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때 입을 헤 벌리고 침을 흘리며 자는 약간은 지저분 하기까지 한 내 아이의 모습을 보며 더럽다는 느낌 대신 “아이고 my precious child (귀한 내 새끼)!” 하며 마음에 깊이 새겨 둔 그림이 떠오르며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도 세상이라는 기숙사로 보냈던 자식이 집으로 돌아 오는 날, 호스피스 병실 침대 끝머리에서 “Precious child 빨리 눈떠라, 이제 집에 와 내 품에 안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자” 하시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니 그 Precious 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지인의 말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는 과정, 죽음이란 말은 더러운 말이 아니요, 부정적인 말도 아니며 귀하고 거룩한 과정의 날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11 월 말 우리는 남편의 전립선 조직검사 결과를 받게 되었다. 12 개 전립선 조직 샘플 가운데 5 개에서 암세포가 발견되었다며 이제는 관찰하며 기다리는 시기는 지나서 수술을 하던지 방사선 치료를 받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물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듣게 된 소식은 아니며, 코비드 바로 전부터 PSA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정상을 벗어 났기에 비뇨기과 전문의의 케어를 계속 받고 있었기에 예전 나의 유방암 소식처럼 크게 놀라거나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빨리 빨리”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반면 미국은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은 CT Scan 도 X-Ray 도 진단에 필요한 모든 검사가 몇 주씩 걸리는 건 보통이고 어떤 일에도 수술부터 하자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이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 특별히 이런 상황을 스스로 control (통제)하고 싶고 되도록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그 분의 통제하심에 나의 불편한 마음을 맡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운다. 또 한 가지 신기 한 것은 20 년 전 나의 암 투병을 통해 학습했던 은혜가 이번 두 번째 암 소식을 대하면서 다시 살아 나는 듯 싶다. 백신을 맞았던 몸이 항체를 만들어 낸 것처럼 예전의 어려움을 통하며 배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체처럼 남아있어 자꾸 what if ... (만약에...) 하는 두려움이 엄습 할 때마다 그 때의 기억들을 되살리며 이 불편한 상황은 오히려 주의 손에 잡힌 끈이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잡아 당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때 가장 깊이 마음에 새겨진 항체의 진실은 아무리 우리가 의학의 힘을 빌어 애를 써도 수술도 약도 모든 치료는 temporary measure (일시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언젠가 이 기숙사 생활은 끝이 있으며 나의 거룩한 마지막 날,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서 딸이 누어있는 침대 끝머리에 앉아서 “애야 눈 좀 떠라, 내 얼굴 좀 보라”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가끔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일들은 피해 갈 상황이 아니라 잠깐 쉬어 마음의 눈을 비비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말을 잘 들으며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